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 15:10)

2023년 4월 16일 부활 2주일 · 가해 · 백색

제58-16호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 부활의 고백과 신앙

(요한 20:19~29)

이제는 “의심하는 토마”라는 낙인을 지울 때도 됐습니다. 이런 별명은 요한복음 기자 미필적 고의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에 나타난 신앙고백과 초대 교회의 전설이 전하는 선교 활동을 보더라도, 토마는 부활의 선교 정신을 용기 있게 실현한 사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였던 집에 그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뵈었다는 소식에야 그 집에 돌아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의문은 두려움에 떨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토마가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다녔다는 상상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절박하고 애타는 용기가 그의 신앙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셨지만, 그들은 그다음에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토마만이 두렵게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인사와 말씀에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응대하는 사람은 토마 뿐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무서워서 안으로 문을 닫아서는’ 상황에서 비롯하곤 합니다. 상실감과 배신감에 지쳐서 자기 마음을 걸어 잠그면,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새로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에만 몰두하다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이뤄낸 성과에 집착하여 자기 안영이라는 좁은 성안에 스스로 갇히곤 합니다. 이 위태롭고 안절부절못한 우리에게 부활

하신 예수님이 닫힌 벽을 뚫고 부활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 자신을 용서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을 봉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온갖 분열과 차별, 편견과 미움의 벽을 깨뜨리고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지고 결함 있는 ‘틈’을 인정할 때, 부활의 생명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에서 얻은 찢어지고 터진 상처 사이, 의심하며 흔들리는 마음의 틈이 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부활의 생명에 자신의 연약함을 여는 일이 참된 용기이며 바른 신앙입니다.

토마는 자신의 불완전한 신앙을 정직하게 대면했습니다. 정직한 의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용서라는 성령의 숨을 먼저 받은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신앙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체험이나 특정 교리를 덮어놓고 확신하는 일은 하느님의 은총에 자신 전체를 개방하는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불완전하게 흔들리는 삶 앞에,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진실을 찾으려는 애타는 용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와 용서의 음성으로 우리를 감싸며 우뚝 서 계십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낙현 신부)

주일 성찬례 일요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평일 성찬례 화·수·목·금 오전 6시 30분

어린이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청소년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 신부

신자회장 김중희 요셉

사제회장 서남철 아브라함



모든 교우는 교회 소식란을 상세히 읽어주시고, 사목 일정과 교우 소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자로 드리는 긴급 소식이나 보고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와 사목

◆ 부활절기 전례곡 안내

부활절 50일(부활주일~성령강림주일) C곡 (성가 81장 이후)

◆ 평일 아침 성찬례 재개 - 4월 18일부터

- 화, 수, 목, 금 오전 6시 30분
- 수요일에는 미사 후 다과와 함께 담소 모임이 있습니다.

■ 알림

◆ 시편 필사 노트 봉헌과 축복

- 부활 2주일 (오늘) 11시 성찬례 중

◆ 4월 신학집담회

4월 20일 (목) 오후 7시 | 스텔팅커퍼 (문래역 7번 출구)

◆ 4월 구역 연합 헌신 예배

4월 26일 (수) 오전 11시

◆ 주일 간편 점심 안내

이번주일: 떡 (김종희 나눔) / 다음주일: 떡 (이난희 나눔)

◆ 관찰사제 휴가

4월 25일(화) - 28일(목) (홍-공성공회신학교)

◆ 예수사랑선교회 모임

4월 16일(오늘) 오후 2시 우리 성당

◆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연습

4월 16일(오늘), 23일, 30일 오후 4시 / 우리 성당

◆ 강남교무구 성직자 수련회 성료

4월 11일(화) - 13일(목)

◆ 나눔과 재활용

- 노트와 다이어리 재활용
- 에코백(성당 물품 나눔에 사용)
- 도서류(특히, 비아 독서 회원 책 - 성당 도서실 마련)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성빈(17일) 박지혁(18일) 정유빈 안도현(20일) 정지원(22일)

◆ 떡 나눔

이번 주일 간편 점심으로 김종희 요셉 신자회장이 모친 별세 위로에 감사하여, 다음 주일은 이난희 볼리나 교우가 자녀 결혼을 축하하여 떡 나눔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 꽃봉헌

신환중 아타나시오(부활대축일), 이성빈 안셀모(부활2주일)

◆ 교우 결혼 안내

이난희 볼리나 교우의 딸 심수연 엘리사벳 교우

신랑 김동희 (김영재 김윤금의 장남)

신부 심수연 (심석래 이난희의 장녀)

4월 22일 (토) 오전 11시 @ 아만티 호텔 서울 2층

(결혼식 이전에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합니다.)

◆ 어머니회 선교기금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만8천원 참기름 1병 1만원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들기름 1병 1만2천원

엿기름 600g 4천원 녹두 800g 2만원

*판매 수익금은 타 지역교회와 외부 선교단체를 위한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헌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고창현 김재현 송미경 유인환 윤길자 이충웅 조진성 주창순 차영호

■ 주정헌금

강신중 강여름 강태석 강현모 김경숙 김경아 김삼홍 문해화 박계자 변진선 서용철 서정민 서형락 송미경 송미정 심종은 유희주 윤선구 윤영옥 윤영자 이경희 이광자 이규리 이성빈 이은미 이자영 이정숙 전병도 정명옥 차기영 한부순 홍성호

■ 감사헌금

부활 강수옥 강현모 고창덕 고창현 고흥 박순연 구균하신부 김경숙 김나희 김문자 김민숙 김영대 김영해 김요한 김용학 김재현 김종현 류인경 민병화 박계자 박남미 박영수 박해웅 변금숙 변진선 서남철 서세룡 서영숙 선병순 성하준 송미경 송미정 신한중 심순덕 심종은 심주민 우영현 유은근 유인환 유혜경 윤범기 윤선구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윤용환 윤지훈 이정희 이광자 이규리 이태라사 이보연 이복련 이성빈 이순환 이용해 이은미 이정숙 이종환 이평한 장분순 전병도 정상임 정은숙 정정훈 조진성 조혜순 주낙현신부 주애다 주창남 주창순 차기성 차기영 차영호 최유정 최종주 최효운 추경민 추형두 한재업 함옥순 사순 박계자 송미경 윤옥랑 한재업 무명1명 세족례 윤영옥 윤영자 신앙특강 윤옥랑 이보연 이태훈

■ 선교특별헌금

김영해 김재현 안창희

■ 기타헌금(미사 헌금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예수사랑

김용학

성공회 영등포 성당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 · 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 선교 특별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47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은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채옥순
최종주 유호애 김복근 이순환 김경수 서세룡

■ 장기출장 박지혁 김솔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군복무 양승윤 박정호

■ 유 학 이재성(독일) 이사빈(독일)

■ 새교우 서용철 서형락 이유신 허민재

부활절기, 부활초 그리고 세레대

부활절기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력에서 핵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며 하느님께서 주신 기쁨과 구원의 승리를 감격스럽게 맛보았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토요일) 예배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주일-일요일)에 성찬례를 드렸습니다. 냉혹한 박해 아래서도 신자들은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부활대축일은 일 년 중 가장 큰 주일이며, 이후 매 주일은 모두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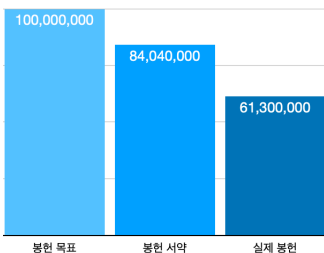
부활절기는 부활주일로 시작하여 성령강림주일(오순절)에 이르는 오십(5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는 <위대한 오십일>, <구원의 절기>, <기쁨의 오십일>로도 불렸습니다. 4세기 니케아공의회에서는 이 절기 동안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정했을 정도로 부활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절기는 부활밤에서 시작하여 부활주일과 부활 후 팔일부, 그리고 사십 일째 되는 승천일을 거쳐 50일째 되는 성령강림일을 아우릅니다.

부활절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일을 과거의 사건으로 축하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오늘과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확인하고 되새기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 단 하루 종교적 의례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날이 변화하고 성숙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50일'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기의 중심적인 상징 두 가지는 부활초와 세레대입니다. 부활초는 부활밤 새로 축복한 불에서 붙여서 세상의 어둠을 이긴 하느님의 빛, 즉 부활의 생명이 만든 빛을 드러냅니다. 부활밤 세례식에서 부활초로 물을 축복하고 그 물로 세례를 베풀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곳이 바로 성천(聖泉 : 거룩한 샘)이라 불리는 세레대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세레대는 교회의 제대와 마주 보는 교회 입구 중앙에 부활초와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세례를 받아 제대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레대 앞에서 성수에 손을 적서 십자성호를 긋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과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례의 경험과 언약을 되새기는 기도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제대와 성천(세레대)이 마주 하며 복음의 성사인 성찬례와 세례를 되새겨줍니다. 우리 성당에도 세레대를 다시 마련해야겠습니다. 제대와 부활초, 그리고 세레대는 모두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삶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주기 때문입니다.

선교 특별 봉헌 현황



봉헌 목표액: 1억원 (2023년 12월까지)

봉헌 서약액: 84,040,000원 (4월 9일 현재, 서약자 73명)

봉헌 누적액: 61,300,000원 (4월 9일 현재)

❖ 섬기는 교우들 ❖

교회위원 구경애 변금숙 선병순 신한중 윤영옥 전병도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애 주형두 이충웅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혜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정희 이난희 이광재(마리아)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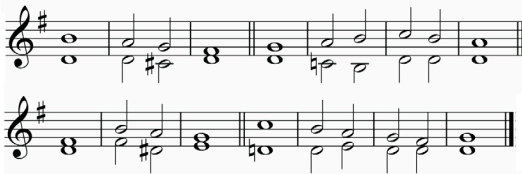
입당성가(선다) ♪ 244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1 다함께
영광송 (C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를 복되다
고 하셨습니다. 비오니,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사랑
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사도 2:14상, 22-32 말은이
시편 시편 16편 다함께



- 1 하느님, 나를 지켜 주소서.
○ 이 몸은 당신께로 궤함입니다.
- 2 주님께 아뢰옵니다.
○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 3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 4 그러므로 이 마음 이 낮이 기쁘고 즐거워
○ 내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사오리이다.
- 5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며
○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 찢게 버려두시리이까?
- 6 주께서 생명의 길을 몸소 가르쳐주시니,
당신을 모시는 흡족한 기쁨이
○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 독서(읽는다) 1베드 1:3-9 말은이
창세성가 성가대 특송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복음서 (선다) 요한 20:19-31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87 다함께
봉헌성가 ♪ 216장 / 나오미화 다함께
예물기도 ✧ 287 말은이
성찬기도 (4양식) ✧ 266
거룩하시다 (C곡) ✧ 257 / ♪ 8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6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C곡) ✧ 270 / ♪ 83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특송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
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
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
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 (선다) ✧ 288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224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4월 16일)		다음 주일 성찬례 (4월 23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김태영	김민경	김태영	이정숙
2독서	서정민	윤지훈	서정민	선병순
대 도	신명식	변금숙	이경희	서남철
십자가	박해웅	이용해/윤영옥	윤용환	이종한/신환중
다음 주일 4월 23일	전례독서 사도 2:14상, 36-41 시편 116:1-4, 12-19 1베드 1:17-23 루가 24:13-35 성 가 입당 209장 봉헌 212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219장			
교 회 청 소	4월 22일 엑솔타테회 2조 고창덕 윤범기 조진성 추경민		4월 29일 유빌라테회 김민경 천상옥 윤지훈 성하준 이현정 이자영	